

KIA 영건들 맹활약... 김기훈 “주말엔 내 차례”



최원준, 공격적 주루 시즌 첫 끝내기 승 기여
김윤동 뒷문단속 든든...하준영 민을맨 부상
내일 SK전 선발...최근 2경기 호투에 기대감

팬들을 웃게 하는 KIA 타이거즈 미래들의 집주. 이번에는 투수 김기훈의 차례다.

‘명예회복’을 노리는 KIA는 올 시즌 세대 교체라는 숙제까지 동시에 풀어야 한다. 시즌 초반 KIA는 자의 반 타의 반 세대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타선의 주축 선수들이 부상과 부진으로 대거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최원준을 중심으로 류승현, 박찬호, 이창진 등이 선발 라인업에서 경쟁력 어필 무대를 갖고 있다.

경험 부족에 따른 실수라는 ‘기회비용’이 들고 있지만 소득은 있다.

김주찬, 김선빈, 나지완, 해틀베이커가 동시에 빠졌던 5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잇몸 야구’로 승리를 만들었던 젊은 야수진은 지난 10일에는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시즌 첫 끝내기 승을 합작했다.

이날 클린업 트리오로 나선 안치홍-최형우-이명기가 단 하나의 안타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뜬타자 최원준이 3안타와 공격적인 주루를 선보이며 연장 10회말 2-1 승리를 이끌었다.

초반 부진 속에서도 승리를 향한 신예 선수들의 열정은 빛난다.

11일 NC와의 경기에 앞서 김기태 감독도 “어린 선수들이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좋더라. 실수는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에 선수들이 잘해줬다”며 신예 야수진에 박수를 보냈다.

1988년생 양현종이 최고참인 마운드에도 신예 선수들의 바람이 거세다.

마무리 자리를 꿰찬 김윤동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키움전에서 피홈런과 함께 3실점을 하면서 ‘0’의 행진을 멈췄던 고졸 2년 차 하준영이 10일 경기에서는 다시 위력적인 모습을 발휘하며 시즌 2승에 성공했다.

신예 선수들의 활약 바탕을 김기훈이 이어받는다. 김기훈은 오는 13일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리는 SK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세 번째 선발 등판을 소화한다.

3월 28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데뷔전을 치렀던 김기훈은 지난 3일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두 번째 선발 경기에 나섰다.

승 없이 1패만 기록하고 있지만 두 경기에서 11이닝을 소화해줬고, 시즌 전 우려를 샀던 사사구도 4개로 묶었다. 특히 한화전에서 5이닝 2실점을 하며 선발승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불펜진의 난조로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박수받은 선발 데뷔전이었던 것이다.

김기훈은 두 번의 우천 취소로 선발 등판이 한 차례 미뤄지면서 10일 만에 다시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원래는 주중 NC전 등판이 예정됐었던 만큼 김기훈은 내심 리그를 대표하는 포수 양의지와와 승부를 기대했었다.

김기훈은 “양의지 선배님을 가장 상대해보고 싶다. 워낙 좋은 포수니까 노림수가 좋을 것 같다”며 양의지와의 대결을 기대했다. 하지만 비로 NC전 등판이 불발된 김기훈은 문학으로 가서 ‘끝내기 명수’가 된 SK 타자들을 상대하게 됐다.

김기훈은 “좋은 타자들이 많아서 이번 등판이 기대된다”며 “앞선 등판을 생각하면 실투가 어렵다. 위기 상황에서 실투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카운트 싸움에서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 내 불을 던지지는 생각이야. 후회 없이 자신 있게 내 불을 던지는 게 이번 등판의 목표다”고 언급했다.

고졸 신인 김기훈이 ‘젊은 KIA’의 또 다른 바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기훈

‘끝내기 타’ 최형우 “최원준이 짱이야”

덕아웃 T 톡톡

▲재가 짱이야 = 쑥스러운 끝내기 주인공이었다. 1-1로 맞선 10회말 1사 1-2루에서 타석에서 선 최형우는 2루에 있던 최원준이 3루 도루에 성공하면서 끝내기 기회를 얻었다. 초구 불을 지켜본 최형우는 2구째 방망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빗맞은 공은 높게 뛴고 멀리 가지 못했다. NC 좌익수 강진성이 3루 익사이팅존에 부딪히면서 공을 잡았다. 하지만 강진성이 땅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주춤하는 사이 3루에 있던 최원준이 홈을 파고들었다. 포수 양의지를 비껴간 공에 최형우는 쑥스러운 끝내기 희생 플라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형우 형 나이스 배팅’이라는 후배들의 놀림에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며 웃었던 최형우는 “(최원준을 가리키며) 재가 짱이야”고 후배에게 끝내기 타점의 공을 돌렸다. 선배들의 찬사에도 김중국 주루 코치에게는 아쉬움이 남았다. 최원준에게 백업 플레이를 지시했던 김 코치는 “스타트가 늦었다. 스타트만 잘했으면 슬라이딩 안 해도 됐다”며 미소를 지었다.

▲여기 없었을 겁니다 = 11일 NC와의 경기에 앞서 타자들은 번트 연습에 공을 들였다. KIA는 전날 번트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1-1로 맞선 8회말 선두타자 최원준이 2루타로 출루하면서 KIA가 대타 유재신을 투입했다. 보내기 번트에 이어 희생타로 결승점을 만들기 위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초구에 시도한 번트가 파울이 났고 유재신은 투볼 투스트라이크에서 삼진을 당했다. 이어진 클린업 트리오의 침묵 속에 KIA는 득점에 실패했다. 10회 유재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이번에도 최원준이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했고 유재신이 다시 타석에 섰다. 이번에는 유재신이 초구에 희생번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KIA는 최원준의 3루 도루와 과감한 홈 쉐도로 끝내기 승을 거뒀다. 유재신은 “최

근에 우리 팀이 번트 실패가 많아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앞에 전진 수비한 야수들도 눈에 보이고 너무 잘 대려고 했다”며 “두 번째 번트도 성공하지 못했다면 아마 오늘 여기(1군에) 없었을 것이다. 어려운 경기였는데 팀이 이겨서 좋다”고 언급했다.

▲하나씩 아웃카운트도 잡고 = 마침내 ‘이종사촌 필승조’가 됐다. KIA의 시즌 첫 끝내기 승이 기록된 지난 10일 월런드는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며 올 시즌 가장 믿음직한 선발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1-1로 맞선 상황에서 등판이 끝나면서 3연승에는 실패했다. 월런드가 내려간 뒤 KIA는 두 번째 투수로 고영창을 투입했다. 세 번째 투수는 고영창의 사촌 동생인 임기준이었다. 두 사람은 각각 실책과 내야안타는 기록했지만 나란히 아웃카운트 하나씩을 잡아내며 처음 필승조로 같은 마운드에 섰다. 고영창은 “나란히 등판을 했다. 자주 이렇게 나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둘 다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거의 때먹은 수준이라 = 하준영이 월런드와 팀 내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하준영은 3월 28일 한화전에서 4-4로 맞선 7회 1사에 등판해 2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하며 프로 데뷔 후 첫승을 신고했다. 하준영은 10일 김윤동에 이어 10회 1사 1루에 출격해 0.2이닝을 소화했다. 이어진 10회말 KIA가 최원준의 재치있는 주루로 결승 득점을 만들면서 승리는 하준영에게 돌아갔다. “이건 거의 때먹은 수준이었다”며 웃은 하준영은 “그동안 운동이 형이 내 것 잘 막아줬으니가 형께 잘 막아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또 “앞선 경기에서 흥민 맞고 힘들기도 했는데 형들과 코치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 또 한편으로 ‘0’이 깨진 거니까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다시 연습 투구

사타구니 통증 경미...로버츠 감독 “복귀 오래 안 걸릴 것”

왼쪽 내전근(사타구니 근육)에 통증을 느껴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Injured List-IL)에 오른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투구 훈련을 시작했다.

이른 복귀를 원하는 류현진과 다저스에는 긍정적인 신호다.

미국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의 다저스 담당 기자 빌 플링킷은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류현진이 오늘 평지에서 공을 던졌다. (하루 쉬고) 13일에 다시 투구 훈련을 한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9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했으나 2회말 2사 후 마일스 미콜라스에게 초구를 던진 뒤 마운드에서 내려갔다. 이날 성적은 1.2이닝 2피안타(1홈런) 2실점이다.

류현진은 왼쪽 내전근에 통증을 느껴 자진 강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이 부위를 다쳤고, 3개월 동안 재활했다.

현지 언론은 이를 떠올리며 류현진의 몸 상태를 걱정했다.

하지만 류현진은 “지나쳐오는 다르다. 당시에는 통증을 느낄 때부터 ‘심각한 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예방 차원에서 교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10일 류현진을 IL에 올리긴 했지만 류현진이 ‘어제 마운드를 내려왔을 때보다 오늘 몸 상태가 더 좋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신호다. 아직 류현진의 복귀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현진은 지난해 통증을 느꼈을 때는 바로 긴 재활을 준비했다. 올해는 빠른 복귀를 원한다.

등판 후 이틀 만에 공을 잡은 건, 긍정적인 신호다. 류현진은 평지에서 한 번 더 투구한 뒤, 경사가 있는 볼펜 마운드에 올라 몸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